

학생생활기록부 내의 청소년활동 기록적합성에 관한 연구*

김 정 명**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교과외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학생생활기록부 내에 그 관련기록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활동 기록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적성을 판단하는 중대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 동안 교과외 활동기록이 형식적으로나마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전형자료로 쓰이지 못했다. 최근 교육개혁과 함께 교육부에서는 이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새로운 학생생활기록부 제도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첫째,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그 학생부 제도를 신뢰하여 실질적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지 알아보고, 둘째, 새 학생부 제도의 실질적 문제점을 파악하며, 셋째,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대안적 학생부 체계를 제안하는 목적을 지닌다. 첫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전형방식이 조사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새 학생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교과외 청소년활동 부분의 기록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문제를 위해서는 대학에 제출된 166개 실제 학생부 기록이 검토되었고 입학전형 관련자들과의 심층면접도 시도되어 실질적인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행 학생부 기록제 내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가는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다.

I. 문제의 제기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집단 체험활동으로 그 교육적 의의(意義)와 효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다[조용하 외, 1994]. 우리 나라의 경우도 해방 후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각급 학교에서 꾸준히 장려되다가 정책당국은 1954년에 특별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정규교육과정 속에 포함시켰다. 즉 학교교육이 정규시간에 “교과과정”

* 본 연구는 1997년 명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명지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철학

을 매개로 교사와 학생간에 이루지는 상호작용으로서 정의되었다면 교과 외의 특별활동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은 학생의 생활경험까지를 학교교육의 연장으로 보는 학교교육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제도적으로 자리잡았고 교육법 내에 기준시간까지 마련된 것이다[김정명 외, 1991].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입시지옥”이라고까지 불리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교육 문화적 배경 내에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쉽게 작동하지 못했다. 결국 오늘날까지 청소년 활동은 학교교육과정 내의 특별활동이던 제도권 밖의 동아리 활동이던 간에 파행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활동으로까지 비쳐지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욕구, 특히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자발적 욕구에 대한 제재는 각급 학교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루어졌고 청소년들은 더욱 타율적 시공간 속에서 생활하는 피동적 존재가 되어갔다.

이렇게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 청소년들의 자주성, 자발성 나아가서는 개인적 적성과 자질이 무시되는 현상이 우리 교육현장에 만연됨에 따라 그들의 미래를 우려하는 소리들도 점점 늘어났다. 특히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방기해 버린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이 분야 관계자들은 물론 청소년들 자신과 부모들에게도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차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정책당국의 노력은 물론 전국민적 캠페인도 번번이 헛구호가 되어 현장으로 메아리 칠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5년 5월 31일 이른바 5·31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된 이후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실질적으로 마련되는 듯했다. 사실 5·31 교육개혁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청소년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경험의 기록을 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종합생활기록부(綜合生活記錄簿)” 제도였다. 이 제도는 교육개혁위원회를 비롯하여 선발된 교사와 대학교수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었지만 발표 초기부터 격렬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종생부(終生簿)”라는 비아냥거림의 별칭이 따라 다녔다. 결국 정책 당국은 이 제도가 처음 입학전형에 반영된 1997학년도부터 그 명칭을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로 바꾸어야 하는 곤혹을 치러야 했다. 그렇게 해서 종래의 “생활기록부”를 개편, 확대하여 비교과 영역을 입시 전형요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시교과 치중의 교육병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던 새로운 시도는 시행 초기부터 골칫거리로 부각되었다.

학생부에 대한 또다른 회의론은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갈구하는 교사

들 그룹에서도 발생했다. 학생들의 생활경험이나 활동체험에 대한 관찰은 선진국과 같이 소규모 학급에서나 가능한데 우리와 같이 격무에 시달리는 대규모 학급담임 교사들에게는 학생부 기록업무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긋판 벌리기 식의 개혁”보다는 개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이따금 대두되었다. 이러한 틈새에서 각종 입시학원 등 소위 입시산업체에서는 입시로 과생하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집단적 노력으로 마스크를 통한 개혁무용론을 부추기는 현상마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장은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거나 조기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사람이 늘어날 만큼 따라서 황폐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러한 현상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교육개혁은 또다시 난관에 부딪치거나 기약 없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육개혁을 통하여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다. 더 이상의 개혁논쟁 보다는 우리의 교육현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금 여기에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우선 청소년들의 자율영역의 관찰 사항인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대학입학전형에서 무시되고 있는 사실의 확인과 함께 학생부 비교과 영역중 청소년활동 관련기록을 분석하여 그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논의하고 그 대안적 기준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방대학을 포함한 우리 나라 4년제 대학 전체의 학생부 비교과 영역 반영실태를 조사하여 대학입학전형에서 청소년활동 관련기록인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199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을 위해 대학에 제출되었던 학생부중 동일한 고교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 166개의 기술(記述)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학생부의 기술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추출해내고자 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특히 생활부 비교과 영역중 청소년 활동 관련부분이 어째서 전형 판단근거로서 제외 (혹은 포함)되거나 거의 형식적인 전형자료가 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밖에 보완조사 차원에서 현장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도 이루어졌다. 면접의 형태로 학생부 기록과 관련하여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는데 주력하였고 학생부 내의 청소년활동 기록 적합성을 대안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II. 대학입학전형과 학생부 비교과 영역

오랫동안 표준화된 테스트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해온 우리 나라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대학입학전형 요소로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동안 청소년들의 교과외 활동경험을 상급학교 진학사정에서 고려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반영방식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못했다. 1991년 청소년 수련활동의 입 시반영 의무화가 체육청소년부에 의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지만 “어떻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론의 공격을 받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1995년에는 봉사활동을 상급학교 진학에 반영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로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되고 있으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봉사활동 기록 문제로 인하여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9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는 그 반영방식을 대학에게 맡긴 채 중등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생활부 평가를 총점의 40% 이상으로 못박았다. 학생부에는 교과성적을 비롯하여 “출결상황” “특별활동” “봉사활동” “행동 발달상황” “자격증·수상경력” 등이 전형요인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쥐게 된 대학의 경우도 대부분 교과성적과 비교과 영역의 “출결사항” 등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부분만을 실제 평가기준으로 활용하였을 뿐 실제 청소년 활동에 속하는 나머지 영역은 형식적인 반영 의지만 드러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우선 1997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비교과영역을 반영하고 있는 대학은 그림 1에서와 같이 4년제 대학 전체의 77%에 이르고 있고 그 중 30% 이상을 반영한 대학이 전체의 8%, 20~29%를 반영한 대학은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학생부에 대한 관심은 신학대와 교육·사범계 대학같은 특수목적 대학에서 두드러졌지만 유형에 관계없이 많은 대학이 비교과 영역을 전형요소로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출결상황”을 제외한 비교과영역은 51%의 대학만이 전형요소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그림 2].

그림 1 : 비교과 성적반영 비율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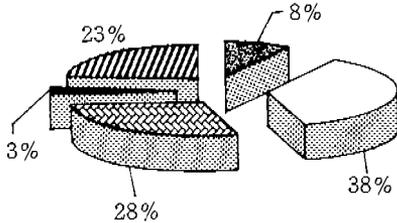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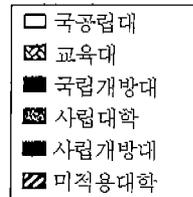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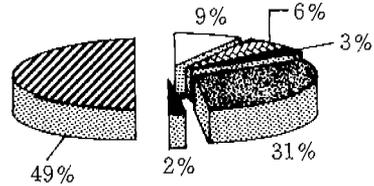


그림 2 : 대학별 학생부 비교과 성적반영 분포 (출결사항 제외)



따라서 주의할 것은 학생부 입시반영에 대한 단순한 통계적 분포가 아니라 반영항목에 따른 실질반영 현황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과반수 이상의 대학이 “출결”을 제외한 비교과 영역을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실질반영 내용이나 비율을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나를 알 수 있다.

학생부를 총점의 40% 반영하고 학생부 점수의 40%를 비교과 영역으로 평가한 우리 나라 대표적 국립대학인 S대학은 표면적으로는 비교과영역을 가장 높은 비율로 전형에 반영한 대학중 하나였다. 그러나 출석 64점 만점에 기본점수를 60점, 특별활동·행동발달·봉사활동상황 64점 만점에 기본점수 60점을 주어 실질반영비율은 각각 0.5%에 머물고 있다.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하고는 학생부 반영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인 D대학의 경우 총점의 34%를 학생부 평가에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나 비교과영역의 평가는 “출결상황”만을 평가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학생부 반영비율이 가장 높았던 C신학대학의 경우도 교과성적만 반영할 뿐 비교과영역은 전형요소에서 제외하고 있다.

면담에 응해 준 10여 개 대학의 입시 관계자들은 각 대학들이 청소년의 자율적 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학생부 안의 비교과 부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래의 내신제와 같이 교과성적 부분만을 반영하거나 실질 반영율을 대폭 낮춤으로써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부 입시반영의 의무화 골레를 벗어나기 위해 주요 대학들이 수험능력시험 만으로 신입생을 뽑는 특차전형에 대폭 의존함으로써 학생부의 기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것도 결국은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교과영역의 입시반영으로 입학전형 절차만 복잡하게 되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전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반영하게 된 데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록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입학전형에 제출된 비교과영역의 기술(記述)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다.

Ⅲ. 학생부 비교과영역 기록 실태

“출결사항”을 제외한 학생부 비교과영역이 대입전형요소에서 무시되는 이유가 그 기록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기인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대학에 제출된 학생부의 기록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준은 학생부 비교과영역의 기록이 평가상 타당한 자료로 활용될 만큼 신뢰성을 갖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여기서 타당성은 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만큼 기록된 내용이 변별력을 갖는가하는 점이고 신뢰성은 실제 관찰에 대해 신뢰할 만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1. 특별활동상황

생활기록부에서 특별활동은 HR활동(학급·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HR활동은 학급이나 학교를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 조직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자치활동체계에 의해 활성화된다. 클럽활동은 취미나 자질, 가치관이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학생들이 클럽을 편성하여 지도교사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공식화된 동아리활동이다. 보통 특별반이라고 부르는 활동은 대부분 클럽활동을 의미한다. 단체활동은 청소년 육성 단체활동과 교내외 단체 수련활동으로서 기록의 범위는 시·도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한다. 특별활동의 기록은 담임교사 혹은 담당교사의 누가관찰기록을 담임교사가 학년말에 학생부 해당란에 기재토록 되어 있다.

조사결과 학급·학교활동란의 기록은 전체 166사례중 38사례(23%)가 공란이었고 기록된 내용의 경우 청소 및 교내외 환경보전활동이 28사례(17%)에 이르렀다. 8사례(5%)는 “학급운영에 적극적 혹은 협조적”의 표현과 같이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머지 55%는 학생부 특별활동 기재요령에 의거 비교적 신뢰성 있는 기록을 하려고 한 흔적이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견해를 기록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음을 미루어 이것들도 형식적인 표기를 크게 넘어서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럽활동란의 기록조사결과 학급·학교 활동란의 기록과는 달리 공란이 발견되지 않았고 “00반” 혹은 “00부”라는 클럽부서 명칭이 예외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록사례에서 활동참여 태도가 신뢰할 만큼 성의 있게 묘사되어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체활동상황란은 161사례(97%)가 공란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같은 특별활동 기록조사결과와 현장교사와의 면담을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단체활동은 극소수 학교를 제외하고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¹⁾ 즉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입시의 명분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활동의 표본으로 볼 수 있는 단체활동이 거의 공식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학급·학교활동은 청소년활동에 준하는 자발적활동의 성격에서 이미 변질되어 있거나 파행적으로 시행된다. 이같은 추론은 10년전 이루어진 고등학교 특별활동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 결과[허경철 외, 1987]나 청소년 활동 전문가들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김정명 외, 1991]와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을 더해 준다. 따라서 특별활동 기록중 학급·학교활동기록과 단체활동기록은 평가자료로서의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다만 클럽활동기록 만이 평가자료로 활용될 만한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본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다. 특별활동의 3개항목 가운데 유독 클

1)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활용한 학생부는 새로 개편된 것인 만큼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다.

럽활동 만이 신뢰성을 유지하는 까닭이 흥미롭다. 그 주된 이유는 클럽활동의 경우는 담임교사가 직접 관찰하지 않아 관찰에 대한 부담이 분산되어 있고 담당교사의 누가관찰에 의지하여 어느 정도 객관적 기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활동참여태도의 기록이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주로 나타나 있어 입학 전형자료로서의 의미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 봉사활동상황

신규 학생부의 특기할 만한 사항 중의 하나는 인성교육강화 차원에서 봉사활동의 기록란을 별도로 만들어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토록한 점이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 자신의 성장을 경험토록 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이러한 공동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키우기 위해 봉사활동상황의 기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교육부, 1995]. 문제는 봉사활동상황을 점수화하여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봉사활동 본래의 취지가 그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학전형자료로 제출된 봉사활동 기록을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봉사활동기록란은 21사례(13%)를 제외하고는 봉사활동내용과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학생과 교사는 모두 새로 개편된 학생부의 봉사활동부분에 대하여 기존의 특별활동 내의 HR활동보다 큰 비중을 기울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활동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87사례(52%)가 청소 또는 환경보전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일손 돕기가 31사례(19%), 헌혈 28사례(17%)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봉사활동 자체가 갖는 순수한 취지가 다소 어긋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소와 환경보전 활동을 HR활동과 중복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개개인이나 소집단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 나가는 활동이었기보다는 학교나 학급 전체가 일정한 시간을 만들어 봉사활동의 내용과 시간을 배려해 실시했던 것으로 이 분야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결과 나타났다. 일손 돕기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다. 헌혈의 경우는 확실한 증빙서류가 첨부되고 비교적 시간의 손실이 없이 이루어 나가는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기록사례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외부 봉사대상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봉사활동 기록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볼 때 봉사활동 역시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차원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종래 대로 특별활동의 학급·학교 활동단에 기재하고 봉사활동상황란에는 외부 공신력 있는 봉사활동 대상기관이나 지역사회단체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제한할 경우 이부분의 기록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영역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3. 행동발달상황

종전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기록은 특별활동상황기록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부에서는 평어(評語)의 기재란이 없어지고 담임교사가 평소 관찰한 내용과 그 외의 교사가 관찰한 내용 등의 누가기록을 담임교사가 학년 말에 종합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동특성에 대한 관찰은 고도의 전문적인 테크닉이 필요한데 과거의 경우 책임감, 협동성, 준법성, 검약성, 예절성 등의 5개 교육덕목을 기준으로 삼고 평가대상 행동을 관찰하고 “가” “나” “다” 등의 평어를 통하여 등급을 매김으로써 그만큼 관찰의 폭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학생부에는 이러한 기준덕목 자체를 없애면서 학생의 다양한 행동특성을 서술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관찰의 폭을 넓히려는 점이 돋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행동발달상황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2~4가지 행동특성이 동시에 기술되어 있다. 일례를 들면 “술선수범하는 모범생으로 자주성과 책임감이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함”, “차분·명랑하고 최선을 다함” 혹은 “근면, 성실하고 예의바름” 등과 같이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특성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때로는 “소극적이지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함” “예의바르고 교우관계는 좋으나 성실성 부족 등”과 같이 다소 상반된 행동특성이 함께 기록되는 사례도 많았다.

둘째, 관찰의 폭이 넓어졌고 행동특성이 자유롭게 묘사되어 있다. 많은 교사들이 종전의 생활기록부 기재에 익숙한 만큼 행동특성의 과거 기준덕목 위주로 기록하였으나 표현의 폭이 넓어졌고 따라서 더욱 설득력 있는 묘사도 종종 눈에 띈다. 가령 “깔끔하고 여성적임”, “차분히 미래를 설계하는 자세가 진지함”, “술선수범하며 겸손함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등과 같이 관찰의 폭이 넓어졌음을 확인하는 기록들이 종종 눈에 들어왔다.

셋째, 특별활동이나 봉사활동의 기록에 비하여 표현이 진지하다. 그 기록의

역사성과 비교적 자유로운 서식기재의 예 때문인지 행동발달상황란의 기록은 가능한 한 성실하게 기록하려는 흔적이 엿보인다. 조사된 166사례에서 공란으로 남겨진 것은 한건도 없었으며 표현양식이 다양한 점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중 청소년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관찰영역인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상황, 행동상황의 기록의 적합성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기록성실성 즉 신뢰성의 측면은 행동발달상황의 기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론되었다. 그러나 평가준거로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행동발달상황의 묘사가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합적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동발달상황의 기록방식도 다소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IV. 결론 : 대안의 탐색

학생생활기록부 내의 청소년활동 관련 상황 기록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각 대학에서 혹은 그 외의 인력선발기관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중점을 두기 어려운 이유가 기록자체의 적합성 문제 즉 그 신뢰성과 타당성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신뢰할 만한 일부 기록들도 기록의 유용성이 문제가 되어 무시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였다. 결국 학생부 비교과 영역 기록의 입시 반영 권장을 통해 중등학교 생활교육의 정상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학생부 제도에 기초한 개혁 노력은 가능한 대안의 발견 없이는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대안의 탐색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학생부 제도는 현행 기록 체제에 의해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그 대안은 현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실행대안으로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배경에서 제시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행 기록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다음 개혁에 대처하는 것이다. 대안이라고까지 언급할 명분은 없지만 학생부 제도시행 2년차인 현재 어떤 형태의 변경요구도 현장실무자(교사)와 각 대학의 입시관련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한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점수에 의한 객관화 평가 체제에서는 서술에 의한 기록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적어도 대학입시가 완전 자율화되

는 시점까지는 현행과 같이 형식적 기록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잡음을 없애는 대안이라는 판단이 여기에 깔려 있다. 그러나 선발 자율권이 완전히 대학에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대학들이 과연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더구나 유용성도 없는 기록을 전형요소로 반영할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추세에서 볼 때에 오히려 교육부에서 이의 반영을 권장하는 현 상황보다 더욱 악화된다고 보아야 타당한 예측이 될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대안의 시나리오로서 비교과 영역의 현행 기록체제 안에서 입시판단 자료로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점진적으로 기록양식을 변경시켜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현행 학생부 기록양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기재요령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신뢰성 있게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다. 수정되어야 할 대안적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활동상황의 기재내용중 관찰의 신뢰성과 평가의 타당성이 낮게 나타난 HR활동란에는 자치활동의 직급 혹은 역할만을 간략히 언급 “○○부원” “○○부장” “반장” 등으로 표기토록 한다. 클럽활동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참여의 적극성을 관찰내용으로 단순화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반 소극적” “○○반 보통” “○○반 적극적”으로 표기하고 직급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끝으로 단체활동은 우리 나라의 전국 청소년 단체활동을 관장하는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청소년개발원 전상망에 입력되어 있는 청소년 개인의 수련활동정보에 의거하여 최소한 표 1의 Code A3, Code A4, Code A5, Code A9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봉사활동 상황의 기록은 현행과 같이 활동 내용과 시간누계를 명기하되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기록으로 유지되기 위해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청소년 등은 이 부분 기록에서 삭제하고 봉사대상기관에 의해 활동내용과 시간이 확인된 것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봉사대상기관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채 사회복지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까닭에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오히려 크게 제약 당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봉사가 필요한 다양한 대상기관을 먼저 선정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봉사활동관리체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보조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는 보다 공신력 있는 자원봉사 기록이 봉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로 입력되어 각급학교에서 이용가능하게 될 것이다.

표 1 : 수련활동기록 전송파일 Code Table

Code	인적사항	Code	수련활동관련사항	Code	등록기관정보
P1	주민등록번호	A1	프로그램명	O1	기록담당자
P2	성명	A2	주최기관	O2	기록발급번호
P3	지역	A3	주관기관	O3	기록일자
P4	주소	A4	활동기간		
P5	전화	A5	활동시간		
P6	학교	A6	활동장소		
P7	학년	A7	프로그램주요내용		
		A8	포상내역		
		A9	활동구분		

자료 : 한국청소년개발원

셋째, 행동발달 상황의 기록은 본 연구조사 결과 나타난 대로 가장 신뢰할 만한 교사의 관찰 사항이다. 다만 그 행동특성의 기록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표현의 복잡성과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어 평가자료로서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결함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유형론 *Typology*에 입각한 학생들의 행동특성분류에 의한 기록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 동서양에는 고대로부터 인간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분류방식이 있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유형론은 행동특성을 9가지로 분류하는 에니어그램 *enneagram*²⁾에 근거를 두고 제안한 것이다(〈표 2〉). 에니어그램은 다른 유형론과는 달리 인간의 행동특성을 고정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와 건전치 못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본질탐구와 카운슬링에 이용되고 있는 역동적 유형론 *dynamic typology*이다.

에니어그램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행동특성 분류방식은 아니지만 그 동안 수많은 상당전문가에 의해서 인성교육 현장에서부터 그 유용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행동특성은 물론 성격 및 태도 가치체계 등까지도 관찰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2〉의 분류범례는 이것을 처음 대하는 관찰 교사들에게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러한 기준에 의해 행동특성을 관

2) 에니어그램은 희랍어 *ernea*(9)와 *gramma*(문자)가 결합되어 생긴 말로 동·서양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유형론중의 하나이다. 최근 이 유형론에 의한 성격분류나 행동특성 분류가 분류의 합리성 행동발달의 예측성 등으로 심리학자는 물론 종교지도자 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표 2 : 에니어그램에 의한 행동특성과 강약점

유형	행동특성	
	강점	약점
완전형	비관적 인식, 윤리적	소심, 위선
현전형	배려, 친절	जू대 없음, 조작적
출세형	유능, 믿음직	기회주의적, 경력중독
낭만형	미학적, 고상함	감정의 기복, 퇴폐적
사고형	현명, 창의성	고립적, 인색함
순종형	충실함, 대담함	의존적, 공격적
활동형	다재다능	과도함, 호사취미
지배형	지도력, 관대함	지배적, 경쟁적
평화형	수용적, 목표지향적	숙명론적, 고집불통

찰하는 훈련이 된다면 정확한 기록을 만들 수 있음은 물론 약점에서 강점으로의 발달 상황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훌륭한 상담자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실제 기록시에는 복잡하고 산만한 기록을 피할 수 있도록 “지배형, 지도력과 관대함을 갖추고 있음” 또는 “지배형, 경쟁적이고 지배적임” 등으로 표기하여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향이 표현되어 평가에 유용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에니어그램에 의한 행동특성 분류체계는 하나의 실천적 대안에 지나지 않음으로 앞으로 기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유용성도 높이는 정밀한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의 정의적(情意的), 심동적(心動的) 발달과 같은 질적인 요소들을 평어에 의해서 단순화하는 우(愚)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질적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계량적 평가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기술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대학이나 다른 선발기관에서 피선발자의 청소년기 교과외 활동상황이나 행동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진지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여건이 미흡하다면 미흡한 대로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관찰기록이 남겨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아직은 큰 소용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나라의 입시문화를 개선하고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와 교육정책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명 외(1991), 「청소년활동 동기부여 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대학교육협의회(1996), “’97 학년 대입 종합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자료 Rm96-2-134.
- 문교부(1989),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취급요령 해설」, 문교부장학자료 제62호.
- 백승권(1981), “특별활동 개선을 위한 일 연구 - 중학교를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종현외(1996), 「199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 사례연구 보고서」, 교육부.
- 신정훈(1972), “행동발달상황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중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경섭(1985), “클럽활동 운영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 - 여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하 외(1994), 「청소년 활동론」, 인간과 복지
- 중앙교육심의회(1995), 「종합생활기록부 구안 및 기재요령」, 5. 31 교육개혁 마련을 위한 구체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황정규 외(1986), 「행동발달 및 특별활동 평가기준의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허경철 외(1987), 「제5차 고등학교 특별활동 교육과정 시안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87-21.
- Palmer, H (1988), *The enneagram : Understanding yourself and the other in Your life*, San Francisco : Harper & Row.
- Pare, J.(1996), “Leisure of 15~19 years old youth”, unpublished paper presented in World Leisure and Recreation Association’s 4th World Congress.